

## 2003

...

## 가

2003년 ESOP 시행으로 직원이 청약한 우리사주중 개인계정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인 1년(9.26)이 경과하여 인출을 희망하는 직원의 개인별 증권계좌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단, 2003년 소득공제받은 직원 인출시 3년 미경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환원)

◆개인계정 : 개인별 10 ~ 22주 출연

◆조합계정 : 예탁후 3년(2006. 9. 26)뒤에 개인계정에 배정

◆우리사주 인출신청 및 본인 증권계좌 확인

○ 인출신청 : 웹상의 e-HRM시스템 "복지 → 우리사주 → 인출신청" 에서 개인별 신청

○ 계좌확인 : 웹상의 e-HRM시스템 "복지 → 우리사주 → 증권계좌확인" 에서 본인 증권계좌 확인 및 수정

○ 신청 및 계좌확인 기간 : 2004. 10. 6 ~12

○ 신청자 개인별 증권계좌 입고 : 2004. 10. 15 (삼성증권)

◆9/23지급 : 추석 효도휴가비 지급(개정된 기본급 적용):별도계좌

◆9/24지급 : 1) 정기급여 : 급여계좌

2) 급식통근비 : 별도계좌

3) 임금인상 소급분

- 1월지급 효도휴가비부문 : 별도계좌

- 나머지 인상부문 : 급여계좌

( ) 6

채신공제조합 청산 진행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9.20 현재]

### □ 개요

채신공제조합 파산결정('98) 이후 지금까지 공제조합에서는 2000.6.5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공제 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는 거출금 원금을 지급한후, 마지막 청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소송건 판결 : 항소심에서 공제조합이 승소 결정(2004.04.08)

- '99.6.30일 퇴직 조합원 1명이 조합을 상대로 탈퇴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 가

추석 효도휴가비 및 2004년 임금인상 소급분이 아래와 같이 지급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채신공제조합)이 패소 하였으나 항소하여 승소함

- 승소 결정사항: 배당액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나동560호 법정)

▣ 법원 파산업무 진행 (19억 정도 소요) : 파산채권 심사중에 있음

- 채권조사 기일(제2차 채권자 집회 개최) 지정 : 대상1,425명 신고

▣ 법원 자산관리(100억 정도 소요)

- KTF 발행주식 250,000주(65억 정도)  
- 자산매각 외 대금 일부 4건에 35억 정도

▣ 배당지급(거출금이자) : 주식 매각대금 및 보유예금으로 경비 등을 공제한 후 약15% 내외 배당 전망(1구좌당 8만원 정도)

- 지급예정 : 파산채권 추가접수자(1,425명)의 법원의 심사 결정 (예정시기 : 무기한) 이후 6개월 정도 소요예정

- 참고사항 : 파산채권 추가접수자의 법원의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조합의 모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배당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 못함 (법원 결정)

▣ 배당 등 이후의 업무

- 공탁금 출금 안내
- 회계장부(최근5년분) 등 파산관재인 인계
- 불요한 문서 폐기 및 일부 정보통신부 인계
- 법인, 직원 세금 정산
- 법원 등기 말소
- 기타



일부터 24일까지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돼 WTO와 ODA의 통신서비스 개방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 등으로 열린 토론회 이뤄졌으며 3개국 노동조합 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보장과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을 촉구했다.

CTWU 장서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3개국 노조가 세계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전략과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자고 역설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WTO와 FTA 등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하는 근로자파견법 재정 등 3개국에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 등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또한 NTT노동조합 모리시마 쇼지 위원장은 정보통신 격차해소를 위해 아시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서 대만 CTWU는 시장의 개방이 공공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과도한 경쟁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작업조건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화텔레콤의 민영화·재단화 그리고 LLU개방은 국익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대만의 기업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할 비용은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개방의 위험성 공동인식...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위해 적극 노력키로**

제2회 동아시아텔레콤노동조합포럼이 지난 22

일본의 NTT노동조합은 공정한 경쟁조건 확립이 대전제가 된다면 자유화 흐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며 규제 의 과도 편중이나 부와 자본의 편중 또는 이익 우선주의로 지나치게 빠져드는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고통을 주었으며 그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은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강도의 강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등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산업에 대한 개방이 기업 수익의 과다한 해외 유출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M&A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성 자본의 횡포로 기업이 단기성과에 급급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공기로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3개국의 노동조합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파견노동자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으며 산업민주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KT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진출 투쟁에 동의하며 적극지지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 포럼을 시작으로 2회째를 맞고 있는 동아시아텔레콤노동조합포럼은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의 중화텔레콤노동조합(CTWU), 한국의 KT노동조합이 참여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재식위원장과 김화식 정책기획실장, 최광수 기획관리국장, 김영삼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전국 60 여명의 상집간부들은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우 속에서도 1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지리산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노고단 아래 성삼재에서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까지 34Km 에 이르는 종주코스는 조합간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몇몇 조합간부들은 은근히 비로 인해 종주를 취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리산 종주를 마친 조합간부들의 얼굴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피곤함도 잊었으며 2 박 3 일을 함께한 동지들을 꺼안고 뜨거운 체온을 느끼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산행을 마치고 중산리 매표소 입구에서 가진 해산식에서 “단지 말뿐인 동지애 보다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동지애” 라며 “지리산 종주를 통해 동지애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출발 당일**에는 서로가 서로를 앞서가려는 경쟁심이 작용해 빠른 속도를 내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리산의 새벽길을 내달렸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옷과 신발이 젖고 배낭까지 젖어들기 시작하자 발걸음도 함께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지리산은 쉽게 품을 열어 줄 수 없다는 듯이 더욱더 맹렬하게 비를 쏟아 붓기 시작했고 차츰 선두와 후미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하천대피소에서 잠시 몸의 피로를 풀고 첫날 기착지인 벽소령대피소에 도착한 조합간부들은 15Km 가 넘는 강행군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마치자마자 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다.

**둘째날** 새벽 6 시 기상한 조합간부들은 다시 장터목대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릎관절과 다리근육에서 전해오는 통증은 한걸음을 떼어놓기 힘들게 했지만 앞서간

동지들이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간 동지들이 힘을 북돋아주며 길을 재촉했다. 간간히 전망 좋은 자리가 나타날 때면 겹겹이 펼쳐진 지리산자락의 기상을 가슴에 새기곤 했다. 무사히 장터목 대피소까지 도착한 조합간부들은 붉게 떠오르는 천왕봉의 일출을 기대하며 서둘러 취침했다.

**마지막날**, 장대비에 가려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천왕봉을 가리키는 돌비석을 만지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 준령을 모두 거쳐 왔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산코스에서도 험난하기로 유명한 중산리코스는 깎아지르듯 가파른 하산 길로 조합간부들의 고행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조합간부들은 성하지 않은 무릎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물에 젖은 배낭은 돌을 이고 가는 듯 했지만 함께한 동지들이 배낭을 들어주는 동지애를 발휘하며 하산하였고 중산리 매표소 입구에서는 먼저 도착한 조합간부들이 박수를 쳐주며 환영해 주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과 찢어질 듯 아파오는 근육통, 그리고 3일 내내 내리는 비는 조합간부들에게 포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42.195Km를 내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한발한발 자신과 싸우고 동지애를 키워가며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이로서 지리산 종주 전국상집 극기훈련은 최악의 악천우 속에서 극적이며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리산 종주에 참여하신 모든 전국상집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 노동조합게시판 2004.09.20]

민영화 2주년을 맞아 KT경영진은 이른바 3대 악재(매출둔화, 성장정체, 주가하락)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쓸렁하다. KT는 지난달 31일 ‘KT 미래 전략 2010안’을 발표하고 계열사와 협력을 통해 2010년 KT그룹 전체 매출 27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킹 △미디어 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5대 ‘신성장산업’에 주력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조원씩 1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KT 경영진의 야심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KT 주식에 대한 국내외 증권사들의 평가는 여전히 “중립”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JP모건의 경우 오히려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K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이처럼 KT에 대한 투자 의견이 ‘중립’인 이유는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후발사업자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T 매출액은 현재 11조원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로 인해 ‘민영 KT호’ 출범 이래 주가는 최악의 악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가 총액 순위가 4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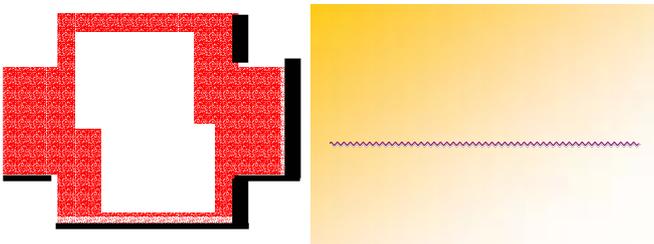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투자’다.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또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KT 경영진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자확대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고배당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장기적 전략이 아닌 단기적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2000년에 전체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 했지만 이후부터 그 비중은 23%로 떨어졌고 지난 해는 18%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 해 KT의 배당성향은 50.8%였다.

이는 KT의 이익금 중 절반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고배당의 성과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몫이어서, 지난해 외국인투자자들이 KT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무려 2580억원 이었다. 이러한 고배당-저투자 전략이 지속되는 한, 신성장동력 발굴은 요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영진은 여전히 단기전략에 집착, 운통 관심이 주가부양에만 쫓혀 있다.

<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KT의 한 관계자는 재무실장은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 지분 보유현도(49%) 소진에 대해 “(주가 상승을 위해 KT에 대해서도) 전자 철강 그윽 등 한국 경제에 근간이 되는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영진은 장기적 투자 강화 전략이 아닌 외국인 소유한도를 완화해서 외자유입을 통해 주식을 부양시키는 단기전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전략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구조조정의 강화와 투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때 국민기업이었던 KT를 더욱 해외투자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출처 : <http://www.healthkorea.net>]

스트레스란 평균 이상의 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몸과 마음이 나타내는 위험신호이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유익한 측면도 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각 기관에 신호를 보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액이 빨리 응고하게 돼 위험에 대비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유발된다.

또 남성의 경우 생식기능을 떨어뜨리며 깊은 잠을 못자게 돼 항상 피곤하고 두통 등을 느끼게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내에서 잊혀져 가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40~50대들 대부분은 자기자신 보다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인줄 알아왔다. 그러다 보면 자기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기의 취미가 무엇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완전주의자가 되려고 하지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얽매이지 말고 적당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사나 부하 직원의 기대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권한 밖의 일도 꺼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또 부하 직원들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시키고 잘못을 지적할 때 ‘보고서가 왜 이모양이야’라고 질타하는 것보다 ‘자네의 보고서는 이런이런 점이 문제가 있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방법이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 상사의 지시나 명령을 받을 때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과 담배를 찾는데 일시적으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습관화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대화의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술자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스트레스를 잊을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을 편히 하거나 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취미생활 등 스트레스를 잊을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2~3일 이상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 수면제를 써도 좋다. 불면증-무기력증-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등이 1주일 이상 계속되면 전문의를 찾는다. (남정현 ·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 ◆[야곱슨 근육이완법]을 익힌다.

왼손→왼팔목→오른손→오른팔목→안면→목→배→왼발→왼발목→오른발→오른발목 순서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해당 부위에 힘을 줬다가, 내쉬면서 힘을 푼다. 아침저녁으로 반복하면 전신 근육이 풀어지면서 스트레스도 덩달아 풀린다. (김종우 ·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클리닉 교수).

####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큰 원부터 작은 원까지 동심원을 그려나간다.

눈앞에 그림을 그려 놓고 시선을 집중해도 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명상도 도움이 된다. 명상은 장난삼아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진지한 자세로 꾸준히 한다. 요가-기공-복식 호흡도 좋다. (오홍근 · 신경정신과 전문의).

####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아침 저녁은 간단히, 점심 식사는 충분히 한다. 야채-과일 등을 많이 먹고, 육류나 튀김류, 커피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당분이 많은 식품은 삼간다. 담배는 일시적 도움은 되지만, 길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한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레몬-라벤다 향을 맡아도 좋다. (최윤근 ·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통증클리닉 교수).

#### ◆어깨-등-목 근육의 긴장을 푸는 체조를 하루 3~5회씩 반복한다.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등 유산소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체력이 받쳐 주면 땀을 흠뻑 흘릴 만큼 격렬하게 해도 좋다. 테니스나 농구 등 승부를 거는 운동도 스트레스를 잊는데 좋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운동을 선택한다

“ ”

[출처 : <http://www.darotv.com> ]

가을이 성큼 다가 왔다. 마음은 벌써 도시를 빠져 나가 가을의 들녘으로 달려간다. 창밖으로는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심에 잠겨있을 농민들이 이내 눈에 밝힌다.

자연이 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듯이 역사 또한 돌이켜 보면 굴곡 많은 세월을 우리에게 남기고 흘러갔다. 이번 가을엔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 떠나보자. 멀리가 아니어도 좋다. 바로 가까운 곳. 남한강을 흘러 왔을 역사와 자연의 흔적을 여주 가을여행

에서 발견해보자.

- 화려했던 역사의 증언 '세종대왕릉'
- 새롭게 부활한 애증의 역사 '명성황후 생가'
- 자연속에 동지를 튼 사찰 '신륵사'
- 풍요로운 강으로의 항해 '황포돛배'

‘한국을 빛낸 위인’을 묻는 설문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세종대왕일 것이다. 많은 왕들이 자의에서건 타의에서건 순탄한 역사를 써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세종대왕이 즉위(재위 1418~1450)했던 시절의 역사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다.

비록 ‘한글을 만든 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그 외에도 무수한 업적들이 또한 세종의 든든한 역사를 받쳐주고 있다.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대왕릉’은 이러한 세종의 업적을 확인하기 위한 사람들로 연일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대왕릉(영릉)은 세종대왕과 왕비 소현왕후의 합장릉이라는 점도 특이하지만 이곳을 이야기 할 때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 바로 풍수지리에 근거한 명당설이다.

이곳의 지세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총총이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국이며, 가히 만세에 나라를 이어갈 만한 기가 탄생할 자리라고 이미 많은 지관들이 말했을 정도이니 어느 정도의 명당인지 짐작이 간다. 그러니 조선왕조의 국운이 이곳에 묘를 쓴 덕택에 100년은 더 연장되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명당지세의 입구에는 세종대왕의 업적, 그중에서도 과학분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간의, 훈천의 등의 전시물들이 방문객을 맞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마치 이를 지켜보기라도 하듯 세종대왕 동상이 위치하고 있다. 실질적

인 세종대왕릉의 정문인 ‘훈민문’을 지나면 넓은 왕릉이 펼쳐지는데 여기서부터가 역사의 증언이 시작되는 곳이다.

넓은 길을 따라 가다보면 홍살문이 나오는데 그 옆에는 무슨 용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돌판이 있다.

이는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했다는 ‘배위’인데, 지나는 길에 절을 한번쯤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계속 이어진 길을 가다보면 정자각이 나오고 그 뒤로 능이 펼쳐진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 능에는 다른 보통 능에서 볼수 있는 병풍석은 없고 대신 난간석만 둘러져 있다. 능 앞에 상석이 두 개 놓여 있었는데 이것으로 또한 이곳이 합장릉임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릉에는 노송이 숲을 이룰 정도로 많다. 또한 넓게 펼쳐진 잔디밭도 인상적인데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역사의 향기에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곳에서는 매년 한글날을 기해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공연과 기념식, 백일장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등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시대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공을 뛰어넘는 공감대가 느껴진다. 비록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들 드라마들은 분명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비운의 삶을 살다간 인물이라면 더더욱...

명성황후 또한 우리 역사속에서 그러한 인물로 기억된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풍랑을 만난 배의 끝자락에서 역사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비운의 인물 명성황후. 그 드라마틱한 인생역정이 시작되었던 곳을 찾아가는 길은 의외로 담담하게 이어져 있다.

‘명성황후’의 생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방문하면 자칫 ‘초라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곳은 오히려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생각한다면 방문객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 올 것이다. 또한 목재가 크지 않고 간살(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도 넓지 않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명성황후 생가는 1697년 숙종의 장인인 인현왕후의 부친인 민유중의 묘막(墓幕)으로 지어진 집이라 전해지는데 현재도 이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 민유중의 묘가 있고, 생가 오른쪽 옆에 귀부(龜趺)와 옥개를 갖춘 민유중 신도비가 있다.

이 신도비 귀부의 머리가 민유중 묘소 쪽을 향해 틀어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명성황후 생가 앞에는 명성황후상과 기념비 그리고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칫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명성황후의 생가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특히 명성황후 기념관에는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각종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역사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

여주 여행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신륵사이다. 통일신라의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특이하게도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남한강이 시원스레 내려다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신륵사는 사실 고찰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는 절이라기 보다는 생활속, 그리고 자연속에 동지를 틈 친근한 사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역사를 놓고 볼 때에도 세종대왕릉이 여주로 천장해 오기 전까지는 쇠락의 길을 걸었었는데 천장이후에 세종대왕릉인 영릉의 원찰로서 다시금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신륵사를 둘러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비단 편리한 교통편 때문에 이곳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은 아니다. 유난히 많은 보물들은 우리가 신륵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도(보물 제228호), 보제존자 석종비(보물 제229호),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보물 제231호), 대장각기비(보물 제230호), 다층전탑(보물 제226호)등의 보물은 물론이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는 극락보전도 꼭 둘러보아야 할 보물이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다층석탑과 다층전탑이다.

다른 절로 치면 대웅전 격인 극락보전 앞에 단아하게 서 있는 다층석탑은 신륵사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탑으로써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실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는다. 또한 강변쪽으로 나 있는 길을 오르면 언덕위에 벽돌을 쌓아 세운 탑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층전탑이다.

이곳에 탑을 세우며 평안을 기원했을 주지스님의 바람처럼 지금도 평온히 흐르고 있는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전탑 아래에는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남한강을 내려다 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잠시 쉬면서 수백년의 세월을 남한강과 더불어 보냈을 은행나무 옆에서 강을 배경 삼아 두고두고 남을 만날 기념사진 한 장쯤을 찍는 것도 잊지 마시길...

#### ■ TIP) 신륵사의 유래

신륵사(神勒寺)라는 절 이름의 유래는 고려 고종 때 남한강 건너 마을에서 거칠고 사나운 용마(勇馬)가 자주 나타났는데 이곳 신륵사의 큰스님이 신력으로 사나운 말에게 굴레를 씌웠다고 한다. 신륵사의 늑(勒)자가 바로 말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용마가 나타났다는 강 건너편은 마암(馬巖)이라 불리는 바위 언덕으로 현재 영월루가 자리잡고 있다.

